

[두더지 사위 개요]

#장르

환타지 전래동화

#형식

애니메이션 22분

#대상

초등학생 이하

#기본 설정

동물과 자연을 의인화

#시대적 상황 설정

옛날 옛적이라는 추상적 시대를 영두에 두고 출연자 복장과 배경을 고려시대로 설정

#전래동화 기본 내용

옛날 두더지 마을에 부자 두더지 영감이 살고 있었다. 두더지 영감에게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두더지 영감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해를 찾아가 자신의 사위가 되어달라고 하자 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자신보다 더 용감하고 힘센 것은 구름이라고 말한다. 구름이 자신을 가리면 자신은 힘이 약해진다고... 그래서 두더지 영감은 구름을 찾아가 자신의 사위가 되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자 구름 역시 고개를 좌우로 좌우로 흔들며 자신보다 힘센 건 바람이라고 말한다. 바람이 몰아치면 자신도 어쩔수없이 떠나려갈 수밖에 없다... 두더지 영감은 다시 바람을 찾아가 자신의 딸과 결혼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런데 바람 역시 자신보다 훨씬 힘센 건 바위라고 말한다. 자신이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바위는 끄덕도 하지 않는다... 두더지 영감은 이번에 바위를 찾아갔다. 그리고 바위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어달라며 간청을 했다. 그런데 바위 역시 고개를 좌우로 흔

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신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무서워 하지 않지만 딱 한가지만 무서워 한다고, 그건 바로 자신의 발밑을 헤집고 다니는 두더지라고, 만일 두더지가 계속 발밑에 굴을 파면 자신도 결국 무너지고 말것이라며 자신보다 훨씬 용감하고 힘센 것은 두더지라고 단언한다. 비로소 두더지 영감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두더지에 중에서 사위를 골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행복하게 살았다.

#전개 방식

전래동화 기본 내용에서 캐릭터와 내용을 추가하거나 각색하여 진행

#캐릭터

*두돌이: 두더지 영감 집의 머슴 청년

성품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매우 용감하다. 두더지 영감의 딸 두순이와는 어릴적부터 소꿉친구, 은근히 두순이를 좋아하지만 머슴 신분 때문에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 두더지 영감의 지시로 두순이 신랑감을 찾으러 해, 구름, 바람, 바위 등을 만나며 온갖 모험을 한다. 그리고 결국 국 고향으로 돌아와 두순이와 결혼하게 된다.

*두순이: 두더지 영감의 예쁜 딸

수줍은 성격, 두돌이를 내심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두돌이가 자신의 신랑감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자 매일 두돌이를 그리워 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온 두돌이와 결혼한다.

*해 : 두순이 첫 번째 신랑감

동쪽 땅 끝에 살며 너무 뜨거워 아무도 접근할수 없다. 하지만 두돌이가 황금독수리의 도움으로 만난다. 구름을 무서워 한다.

*구름 : 두순이 두 번째 신랑감

정처없이 하늘을 떠돌아 다녀 어디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두돌이는 사슴이 만들어준 방패연을 타고 만난다. 바람을 무서워 한다.

*바람 : 두순이 세 번째 신랑감

서쪽 바다 끝 어딘가에 살며 너무 빠르고 사나워서 접근하는건 모조리 입김으로 날려버린다. 두돌이는 뿔거북이의 도움으로 바람을 만난다. 바위를 무서워 한다.

*너럭바위:두순이 네 번째 신랑감

두더지 마을 산에 있는 거대한 바위,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하여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줄 알고 있다.하지만 자신의 발밑을 파고있는 두더지들을 무서워 한다.

*두더지영감:두순이 아버지,

딸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여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힘센 사위를 얻으려고 두돌이에게 딸의 신랑감을 찾아 오라는 지시를 한다.

*황금독수리:뜨거운 불을 견딜수 있는 깃털을 지녔다.두돌이를 도와 해를 만나게 해 준다.

*파란사슴:평생 방패연을 만들며 산다.두돌이에게 구름을 만날 수 있는 방패연을 만들어준다.

*뿔거북이:바다에서 가장 헤엄을 잘치는 동물,두돌이를 도와 바람을 만나게 해 준다.

*그 외 두더지 마을의 두더지들,두돌이가 모험중에서 만나는 귀신과 괴물,

두더지 사위

(기와집, 흙집, 초가집 등이 보이는 아늑한 산골마을 풍경이 화면에 잡히고,)
줄줄줄, (맑게 흐르는 시냇물,)
(투명하게 맑은 물속 바위돌 부근에서 옹기종기 유명하고 있는 피래미 십여 마리,)
(살그머니 물속 피래미들을 접근하는 두 손,)
(투명한 시냇물에 두발을 담그고 두 손으로 피래미를 잡으려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조심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두돌이, 아홉살 정도, 고려시대 아동복장, 머리는 뒤로 따아내렸고, 깨끗한 이미지의 생김새, 두 더지를 의인화,)
첨방, (이때 두돌이 옆에 주먹만한 돌멩이가 던져지며 물이 왈칵 튀긴다.)
(물을 흠뻑 뒤집어쓴 두돌이,)
두순이: 깔깔깔, 고기가 두돌이 널 잡겠다! (물가에서 두돌이를 향해 깔깔 거린다. 아홉 살 정도, 예쁜장한 용모에 고려시대 한복차림,)
두돌이: 두순이 너 때문에 고기 다 놓쳤잖아! 고기 잡아달라고 조를 땀 언제고! (갈대와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펼쳐진 벌판을 깔깔 거리고 달아나는 두순이를 잡아먹을 듯이 씩씩대며 쫓아간다.)
두순이: 잡아 봐, 잡으면 놓친 고기 내가 다 잡아 줄게! 깔깔깔! (벌판을 깔깔 거리며 달아나고,)
두돌이: 거기 서! 잡히면 가만 안둘거야! (달아나는 두순이를 씩씩대며 쫓아가고,)
(갈대와 야생화가 무성한 벌판을 달아나는 두순이와 쫓아가는 두돌이,)
(이때 달아나던 두순이가 무언가를 발견하며 우뚝 걸음을 멈춘다.)
(아파트만큼이나 거대한 바위를 올려다보며 서있는 두순이, 뒤따라 오던 두돌이가 끼익 걸음을 멈추고,)
두순이: 아름다워... (바위를 올려다보며 황홀한 표정이고,)
두돌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너럭 바위야, 나도 정말 멋진 바위라고 생각해. (두순이와 나란히 너럭바위를 올려다보며 흐뭇한 미소,)
두순이: 바위가 아니라 저거, (손가락으로 바위 위쪽을 가리킨다.)
(바위 중간쯤 틈새에 피어있는 참나리 모양의 분홍빛 야생화가 화면바짝,)
두순이: 저렇게 멋진 참나리는 처음 봐, 갖고 싶어, (야생화를 올려다보며 부러운 표정이고,)
탁탁탁, (갑자기 너럭바위를 향해 달려가는 두돌이,)
두순이: 어딜 가는거야? (바위를 향해 달려가는 두돌이를 향해 소리치고,)
두돌이: 내가 참나리를 꺾어 줄게! (바위를 기어 올라가며,)
두순이: 위험 해! 그만 뒤! (걱정스런 표정으로 소리치고,)
두돌이: 걱정 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참나리를 꺾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깡깡대며 바위를 올라간다.)
(깡깡대며 바위를 올라가는 두돌이,)
(초조한 표정으로 두돌이를 응시하는 두순이,)
두순이: 괜히 멋있다고 했어... (초조한 표정,)
턱, (야생화 부근의 바위를 잡는 두돌이의 손,)
(간간 힘을 쓰며 야생화 바짝 곁으로 올라오는 두돌이 얼굴이고,)
두돌이: 예쁘다... 두순이에게 딱 어울리는 꽃이야, (야생화를 바짝 보며 미소,)

툃,(야생화를 꺾는 두돌이,)
 (야생화를 입에 무는 두돌이,)
 두순이:조심해서 내려 와!(두돌이를 향해 초조한 표정으로 소리치고,)
 두돌이:걱정말라니....!(입에 야생화를 물고 내려오다 발이 미끈하며 균형을 잃고 휘청,)
 두돌이:아앗!(떨어진다.)
 두순이:두돌아!(경악하며 소리치고,)
 척,(떨어지다 바위 한쪽 끝을 잡는 두돌이 손,)
 두돌이:히,(한쪽 손으로 바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두순이를 향해 이를 드러내며 미소,입에는 참나리를 물고,)
 두순이:후,(안도의 한숨 팍 내신다.)
 (두순이 머리에 참나리를 꽂아주는 두돌이 손이 화면 바깥,)
 두돌이:정말 예뻐....(머리에 야생화가 꽂힌 두순이를 보며 감탄,)
 두순이:분홍색 참나리는 모두 예뻐,(미소지으며,)
 두돌이:내 말은 참나리가 아니라 두순이 널 말하는 거야,(진지한 표정으로,)
 두순이:놀리지 마,(얼굴 붉히고,)
 두돌이:놀리는 게 아냐,넌 참나리 보다 백배는 더 예뻐 정말이야,(진지,)
 두순이:두돌이 넌 참 용감해,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용감할거야,(두돌이를 향해 미소,)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이때 두순이 머리에 꽂힌 야생화를 뽑는 손과 함께 음성,)
 두순이:아빠!(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있는 중년 두더지를 향해 반가운 표정으로, 중년 두더지는 상투머리에 기품있는 두더지,)
 두돌이:주인님,(중년 두더지를 향해 허리를 굽힌다.)
 중년두더지: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한 자를 난 알고 있단다.(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두순이:그게 누구예요?(두돌이와 함께 잔뜩 궁금한 표정,)
 (속 고개를 돌려 해를 올려다보는 중년 두더지,)
 (이글거리는 해를 우뚝 응시하는 중년 두더지,)
 (이글거리는 해가 화면바깥,)

 (이글거리는 해,지금부터 십년 후로 곧장 이동된다.)
 (해를 바라보며 우뚝 서있는 두더지영감, 머리에 감투쓰고, 팔자수염,)
 (두더지 영감 뒤에는 청년의 모습인 건장한 두돌이가 공손히 서있다.)
 두더지영감: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한 자는 바로 저 해다.(해를 우뚝 응시하며,)
 “난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한 자를 사위로 삼고 싶다.”(굳은 표정으로 서있는 두돌이를 배경으로 두더지 영감의 단호한 음성,)
 두더지영감:두돌이 너가 해를 만나 내 딸 두순이와 결혼해 달라고 간청해 보거라,해도 두순이의 소문을 들었으니 승낙할 것이다.(두돌이를 향해 자신 있는 표정으로,)
 두돌이:알겠습니다.주인님,(두더지 영감을 향해 허리를 굽힌다.)
 두더지영감:난 지금까지 두돌이 널 우리집 머슴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그래서 명령을 하는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것이다.(진지,)
 두돌이: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사위를 데려 오겠습니다.(단호하게,)
 두더지영감:그리고 이건 우리집 대대로 전해지는 보물이다.(등에 맬만큼 커다란 밥주걱 한 개를 두돌이에게 내밀며,)

두더지영감:주문을 하면 무엇으로든 변하게 할수 있다.위급할 때 사용하거라,(진지하게,)
두더지영감:명심할 것은 앞으로 세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세 번을 사용하면 밥주걱
은 효력이 없어진다.

(밥주걱을 들고 진지해 지는 두돌이의 표정,)

.....

(어두운 밤, 장면이 바뀌며 불켜진 허름한 초가집이 화면에 잡히고,)

(초롱불이 화면바짝,)

(머리띠를 질끈 묶는 손,)

(초롱불이 켜진 실내, 밥주걱을 등에 매고 대각선으로 묶는 두돌이,)

흑,(초롱불을 입김으로 불어 끄는 두돌이,)

덜컹,(방문을 열고 나오는 두돌이,)

(신발을 신는 두돌이,)

두순이:두돌아,(사립문 밖으로 나오는 두돌이를 조심스럽게 부른다.흠칫 두순이를 돌아보는
두돌이,)

두돌이:두순아가씨,(반가운 표정이고,)

두순이:정말 해를 만나러 갈거야?(두돌이를 향해 안타까운 표정으로,)

두돌이:그럼요,주인님께선 두순아가씨를 해와 결혼시키고 싶어 하십니다.(단호한 표정,)

두돌이: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한 해를 데리고 올게요,해도 아름다운 두순아가씨 소문을
들었으니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겁니다.

두순이:해를 만나려면 황금독수리에게 안내를 부탁해야 하는데 황금독수리는 어둠의 숲속에
살고있어,어둠의 숲속에는 귀신들이 득실거린단 말이야,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살아 돌아
오지 못해,제발 가지 마,(안타까운 표정으로,)

두돌이:두순아가씨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라면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걱정말고 기다리
고 계십시오,(미소지으며,)

두돌이:다녀 오겠습니다.(두순이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두순이:잠깐만 두돌아....!(황급히 두돌이를 부르고,돌아서려다 다시 두순이를 돌아보는 두
돌이,)

두돌이:하실 말이라도....?(두순이를 향해 기대서린 표정으로,)

두순이:사실 난....(우물쭈물,)

(바짝 긴장되는 표정의 두돌이,)

(착잡해지는 두순이의 표정,)

두순이:내가 아끼던 손수건이야,가져 가....힘들 때 땀도 닦고,(참나리 야생화가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을 두돌이에게 내밀며,)

(손에 들고 있는 손수건을 잠시 응시하는 두돌이,)

푹,(손수건을 품속에 넣는 두돌이,)

두돌이:기다리세요!해를 데리고 올게요!(탁탁탁,어둠속을 달려가며,)

두순이:두돌아....!(어둠속으로 사라지는 두돌이를 바라보며 허탈한 표정이고,)

두순아:사실 난 두돌이에게 시집가고 싶단 말이야.....(눈물 주르륵,)

* * *

(기괴한 나무들로 꽂 들어찬 어두운 숲속이 화면 가득 잡히고,)

(타오르는 횃불이 화면바짝,)

(어둡고 기괴한 나무들로 들어찬 숲속을 걸어가는 두돌이,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두돌이: 정말 으스스 하고 기분 나쁜 숲이야....(긴장되는 표정,)

우우우우----(이때 어디선가 기괴하고 음산한 소리가 들리고, 흥칫하는 두돌이,)

두돌이: 이게 무슨 소리지?(바짝 긴장,)

(괴목 뒤에서 손톱이 길고 마귀 모양의 귀신 하나가 속 나타난다.)

(곧장 괴목 여기저기에서 각종 마귀 모양의 귀신들이 속속 나타난다.)

우우우우----(수십명의 마귀들이 괴목 뒤에서 두돌이를 에워싸고 기괴한 소리를 지른다.)

두돌이: 이곳 어둠의 숲속에 살고 있다는 악귀들이야, (바짝 긴장하고,)

우우우우----(이빨과 손톱을 드러내며 더욱 기괴한 소리를 질러대는 귀신들,)

두돌이: 이 횃불 때문에 덤벼들지 못하고 있어, (긴장된 표정으로 횃불을 보며,)

두돌이: 횃불이 꺼지기 전에 빨리 황금독수리를 찾아야 할 텐데, (부지런히 걸으며,)

우우우우----(두돌이를 일제히 따라가는 수십 귀신들,)

우우우우----(괴목으로 들어찬 어두운 숲속을 배경으로 귀신들의 소리 가득 들리고,)

두돌이: 황금독수리님! 어디 계세요? 황금독수리님! (숲속을 다니며 부지런히 소리친다.)

두돌이: 도대체 황금독수리님은 어디 계신거지?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어, (초조한 표정이고,)

두돌이: 횃불도 점점 꺼져 가는데....(희미하게 사그러지는 횃불을 보며 불안,)

휘이잉.....(이때 바람이 불며,)

치익, (횃불이 꺼진다.)

두돌이: 큰일이야, 횃불이 꺼졌어....!(당황하고,)

까아아악, 끼끼끼!(순간 주위의 수십명 귀신들이 두돌이를 향해 덩쳐간다.)

카아악, (이빨을 드러내며 두돌이를 덮치는 귀신,)

(황급히 허리를 숙어 피하는 두돌이,)

두돌이: 저리 가! 귀신 따위는 무섭지 않아!(꺼진 횃불을 마구 휘두르며 덩치는 귀신들 내쫓는다.)

짜악, (순간 두돌이 어깨를 할퀴는 귀신의 손톱,)

파파팍, (바닥을 구르는 두돌이,)

카아악, (이빨을 드러내며 두돌이를 향해 덮쳐오는 귀신,)

패액, (덮쳐오는 귀신을 향해 들고 있던 횃불 몽둥이를 던지는 두돌이, 여유있게 피하는 귀신,)

두돌이: 맞아, 주인님이 주신 밥주걱, (생각이 번뜩,)

(등에 차고 있던 밥주걱을 뽑는 두돌이,)

두돌이: 횃불로 변해라!(밥주걱을 들고 소리친다.)

푸슈슈슁, (밥주걱이 횃불로 변한다.)

두돌이: 물러가라 악귀들!(횃불을 들고 우뚝 서서 소리친다.)

까아악, 까가깍, (덮쳐오던 귀신들이 기겁을 하며 달아나고,)

두돌이: 황금독수리님 어디 계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횃불을 들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며 소리친다.)

두돌이: 황금독수리님!

화아아악, (이때 갑자기 찬란한 빛이 쏟아지고,)

두돌이: 아앗, 눈부셔!(찬란한 빛에 휩싸이며 눈이 부셔 비틀거린다.)

황금독수리: 혼자 어둠의 숲속을 들어오다니 용감한 청년이군, (전신이 황금 깃털로 뒤덮힌

독수리가 두돌이 앞에 우뚝 서서,)

두돌이:황금독수리님....!(황금독수리를 발견하고 반색,)

황금독수리:무슨 일로 나를 찾는 건가?(두돌이를 향해 인자한 표정으로,)

두돌이: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해님에게 데려다 주세요,(황금독수리에게 간청하고,)

황금독수리:해님에게 널 데려달라고?(놀라는 표정,)

두돌이:제 주인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한 해님을 사위로 삼고 싶어 해요,그래서 해님에게 두순아가씨와 결혼해 달라고 간청을 해야합니다. 제발 저를 해님에게 데려다 주세요,(열심히 간청하고,)

황금독수리:널 해님에게 데려다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용암보다 뜨거운 불안개 지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한다.난 황금깃털이 있어 괜찮지만 넌 그 고통을 견딜수 없을 것이다.(단호한 표정으로,)

황금독수리: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도 해님에게 갈수 없었다.포기하거라,(진지하게,)

두돌이:두순아가씨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이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저를 해님에게 데려다 주십시오,(단호하게,)

황금독수리:흠,(갈등하고,)

두돌이:설사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황금독수리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제발,(간청하고,)

황금독수리:좋다.해님에게 데려다 주마,(표정이 진지해지고,)

두돌이:고맙습니다.황금독수리님!(반색을 하고,)

황금독수리:타거라,(두돌이에게 등을 보이며 무릎을 꿇는다.)

휘릭,척,(황금독수리 등에 타는 두돌이,)

황금독수리:꼭 붙들거라!(파아아악,두돌이를 등에 업고 허공으로 솟구친다.)

쿠우우우우,(두돌이를 업고 해를 향해 쏘아지듯 날아가는 황금독수리,)

두돌이:엄...청나게 빠르다....!(황금독수리 등을 붙잡고 납작 엎드려,)

쿠쿠쿠쿠,(두돌이를 업고 빠르게 솟구치는 황금독수리가 화면바짝,)

(용암처럼 자욱한 붉은 안개가 화면가득 잡히고,)

황금독수리:지금부터 불안개 지대다! 단단히 각오해!(불안개 지대를 향해 쏘아지며,)

두돌이:네,황금독수리님,(바짝 긴장하는 표정이고,)

과아아아,(두돌이를 업고 불안개 지대로 들어가는 황금독수리,)

과과과과,(두돌이를 업고 불안개 지대를 통과하는 황금독수리,)

두돌이:우웁,너무 뜨거워 숨이 막혀....!(고통으로 일그러지는 표정,)

쿠쿠쿠쿠,(두돌이를 업고 불안개 속을 통과하는 황금독수리,)

(열기의 고통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헐떡거리는 두돌이,)

황금독수리:못참겠으면 말해! 돌아갈 테니까!

두돌이:돌아가지 않을 거예요!참을 수 있어요!(고통으로 입술을 악물며,)

(품속에서 두순이가 준 손수건을 꺼내는 두돌이,)

“내가 아끼는 손수건이야....힘들 때 땀도 닦고....”(손수건을 보며 두순이 생각을 하는 두돌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두돌이,)

두돌이:기다리세요 두순아가씨,꼭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한 신랑감을 데려갈게요,(내심,손에 쥐고 있는 손수건을 보며 결심서린 표정이고,)

과아아아,(두돌이를 태우고 불안개속을 날아가는 황금독수리,)
(이때 멀리 불안개 속에 얼음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거대한 나무 한그루가 우뚝 서있다.무성한 잎사귀도 얼음처럼 투명하다.)
황금독수리:얼음나무다.(얼음나무를 발견하고,)
황금독수리:저 얼음나무에서 해님을 만나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해님이 너무 뜨거워 견딜수가 없어,(두돌이를 태우고 얼음나무를 향해 날아가며,)
(긴장되는 표정의 두돌이,)
황금독수리:난 여기서 돌아가야 해,얼음나무에 닿으면 내 깃털이 녹을테니까,(얼음나무에 다가가며,)
두돌이:정말 고마웠어요 황금독수리님.(친근한 표정으로,)
황금독수리:이때야,뛰어내려!(얼음나무 위를 날으며 소리치고,)
확,(황금독수리 등에서 뛰어내리는 두돌이,)
슈우우우,(떨어지는 두돌이,)
퍼어억,(무성한 얼음나무 잎사귀 속으로 처박히는 두돌이,)
황금독수리:행운을 빈다!용감한 청년!(슈파아아아,방향을 바꾸며 날아가고,)
(무성한 얼음 잎사귀로 뒤덮힌 얼음나무,두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씩,(얼음나무 잎사귀 속에서 두돌이 얼굴이 튀어나오고,)
두돌이:너무 시원해....!(얼음잎사귀를 만지며 기분좋은 표정,)
스으으,(이때 거대한 불덩어리가 서서히 솟구쳐 오른다.불덩어리 주위로 펼쳐이는 불꽃,흠칫 돌아보는 두돌이,)
해:넌 누구냐?용암보다 뜨거운 고통을 참다니 대단하구나,(마치 메아리처럼 울리는 음성으로 두돌이를 향해 말한다.불덩어리에 얼굴 윤곽이 나타나고,)
두돌이:해님!(놀란 표정으로 반색을 하고,)
두돌이:저는 두더지 마을에 살고 있는 두돌이 입니다.(당당하게,)
해: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는 것이냐?
두돌이:저희 주인님께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사위를 찾고 있습니다.부디 두순아가씨 배필이 되어 주십시오,(얼음나무 속에서 해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해: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두순이 소문은 들었다.(진지해지는 표정이고,)
두돌이:주인님께선 해님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이 세다고 했습니다.두순아가씨와 결혼해 주십시오,(간청,)
해:내가 용감하고 힘이 센 것은 사실이다.워든 마음만 먹으면 모조리 태워 버릴수 있으니까,(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해: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이 세지는 않아,(착잡한 표정,)
두돌이:해님보다 용감하고 힘센 자가 있단 말인가요?(놀란 표정으로,)
해:그것은 구름이다.난 산도 태워버리고 호수도 말려 버릴수 있지만 구름이 나타나 가려버리면 싸늘히 식을 수 밖에 없다.(주눅든 표정으로,)
해:때문에 난 두순이 배필이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힘센 구름이라면 몰라도,(우울한 표정으로,)
두돌이:주인님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사위를 찾으려고 하는데....(내심,잠시 망설이고,)
두돌이:구름님은 어디 있죠?(해를 향해,)

해:구름이 있는 곳은 아무도 몰라,하늘을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니까....그런데 신선봉 꼭대기에서 평생 방패연을 만들고 있는 파란사슴은 구름이 있는 곳을 알고 있을 것이다.

두돌이:파란사슴님을 만나면 되겠군요,(반색을 하며,)

해:하지만 신선봉은 하늘까지 달아있어 꼭데기에 도달하려면 백일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올라가야 한다.파란 사슴을 만나는 건 불가능 해,(진지하게,)

해:포기하거라,(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두돌이:아니예요,전 할 수 있어요,(단호하게,)

두돌이:반드시 두손 아가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배필을 데려갈 겁니다.(결심 서린 표정으로,)

*

*

*

(장면이 바뀌며 하늘까지 까마득하게 뻗어있는 바위 절벽이 화면 왕창 잡히고,마치 기둥을 세워 놓은 듯이,절벽은 삐죽삐죽하고 험한 형세,)

(절벽 바위를 딛는 발이 화면 바짝,부스러지는 돌맹이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진 돌맹이,)

(까마득한 절벽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두돌이,이미 올라온 발밑도 까마득하다.웃이 여기저기 헤어져 너덜거린다.)

(끝이 안보일만큼 까마득히 소아있는 절벽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두돌이,)

두돌이:후우,(잠시 바위를 끌어안고 쉰다.)

두돌이:오십팔일을 올라 왔는데 아직도 끝이 안보여,(까마득한 위를 올려다보며,)

휘이이잉,(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두돌이의 옷깃을 흔든다.)

두돌이:배고픈건 참을 수 있겠는데 오십팔일동안 잠을 자지 않았더니....(지친 표정이고,)

두돌이:졸려....(스르르 감기는 눈꺼플,)

(그러다 문득 정신을 번쩍 차리는 두돌이,)

두돌이:이러면 안돼,정신을 차려야지,(결심,)

(품속에서 두손이가 준 손수건을 꺼내는 두돌이,)

(손수건의 냄새를 깊숙이 맡는 두돌이,)

두돌이:기다려요,두손 아가씨....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배필을 반드시 데려갈게요,(단호한 표정으로,)

속속,(다시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두돌이,)

드드득,(이때 디딘 바위가 부스러지고,)

두돌이:어엇,(균형을 잃고 휘청,)

두돌이:아아악!(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쿠우우우,(빠른 속도로 떨어지며 등에 차고 있던 밥주걱을 뺏는 두돌이,)

두돌이:채찍으로 변해라!(밥주걱을 들고 소리치고,)

푸슈슌,(밥주걱이 채찍으로 변한다.)

두돌이:야핫!(쉬이이익,떨어지며 채찍을 뺏는다.)

좌락,(절벽 삐죽 튀어나온 바위 모서리에 감기는 채찍,)

두돌이:후,큰일날뻔 했어,(채찍에 대롱대롱 매달려,)

휘이이잉,(까마득한 신선봉 바위 절벽을 배경으로 휘몰아치는 바람,)

턱,(절벽 꼭데기 모서리를 잡는 손,)

두돌이:이익....다 올라 왔어....(이를 악물며 절벽 모서리를 잡고 올라온다.)

(절벽 위로 간신히 올라오는 두돌이, 등에 밥주걱 차고,)

두돌이:해냈다....신선봉 꼭대기에 올라온거야....(엎어져 헐떡거린다.)

파란사슴:백일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자네처럼 용감한 청년은 내 평생 처음이야,(두돌이 앞에 우뚝 서서,전신이 파란 색깔의 사슴,머리의 뿔이 돋보이고,)

두돌이:파란사슴님인가요?(반색을 하며,)

파란사슴:그래 내가 파란사슴이다.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 건가?(자애로운 표정으로,)

두돌이:구름님을 만나게 해주세요,파란사슴님은 구름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실거라고 했어요,(파란사슴에게 간청,)

파란사슴:구름님을?(놀라는 표정으로,)

두돌이:두순아가씨 배필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자를 찾고 있는데 해님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자는 구름님이라고 했거든요,(사정조로,)

파란사슴:흠,얘기를 들어보니 구름님을 꼭 만나야겠구나,(잠시 생각하고,)

파란사슴:하지만 구름님을 만나려면 끝도 없는 하늘을 정처없이 떠다녀야 하고 끔찍한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그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란다.(진지,)

두돌이:두순아가씨 배필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전 참을 수 있어요,구름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단호하게,)

(잠시 생각에 잠기는 파란사슴,)

파란사슴:좋다.구름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두돌이:감사합니다!(반색을 하며 파란사슴에게 꾸벅 인사하고,)

.....

(장면이 곧장 바뀌며 엄청나게 큰 방패연과 방패연에 매달린 광주리가 화면에 왕창,방패연은 허공에 떠있는 상태,방패연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밧줄이 지면 말뚝과 연결되어 있다.)

파란사슴:아껴먹으면 백일은 먹을 수 있는 보리가루일세,(보리가루가 들어있는 묵직한 자루를 방패연 광주리 옆에 서있는 두돌이에게 내민다.)

파란사슴:방패연을 타고 하늘을 날다보며 언젠가 구름님을 만날 수 있겠지,하지만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른다.(두돌이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두돌이:백 일이 아니라 천일이 걸려도 꼭 구름님을 만날거예요,(보리가루 자루를 들고 씩씩하게,)

파란사슴:타거라,(방패연과 연결된 밧줄을 낮으로 꿇을 자세를 취하며,)

(광주리에 올라타는 두돌이,)

두돌이:파란사슴님,밧줄을 꿇으세요!(광주리에서 소리치고,)

팍,(낮으로 말뚝에 연결된 밧줄을 꿇는 파란사슴,)

동실,(허공으로 떠오르는 방패연과 광주리,)

파란사슴:꼭 구름님을 만나거라!(방패연 광주리를 타고 허공으로 동실동실 떠오르는 두돌이를 향해 소리친다.)

두돌이:고맙습니다.파란사슴님!안녕히 계세요!(파란사슴을 향해 손을 흔든다.)

(아득히 멀어져 가는 방패연 광주리를 바라보는 파란사슴,)

파란사슴:정말 용감한 청년이다.(감탄하는 표정이고,)

.....

(하늘을 떠가는 방패연 광주리,)

두돌이:구름님!어디계세요!할 말이 있어요!구름님!(하늘을 향해 소리친다.)

두돌이:저는 두더지마을의 두돌입니다!두순아가씨 배필을 찾고 있어요!(소리치고,)

두돌이:구름님!(소리친다.)

(끝없는 하늘을 떠가는 방패연 광주리,)

.....

(별이 총총하게 떠있는 어두운 밤하늘,)

(밤하늘을 하염없이 떠가는 방패연과 광주리,)

(광주리 난간에서 턱을 괴고 밤하늘을 응시하는 두돌이,)

(문득 달이 두순이로 변하고,)

두돌이:두순아가씨...너무 보고 싶어요...(두순이로 변한 달을 보며 아련한 표정이고,)

두순이:두돌아,빨리 돌아와....보고 싶단 말이야....용감하고 힘센 배필을 안데려와도 괜찮아...(두돌이를 향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든다.)

두돌이:그래요 두순아가씨,지금 갈게요,(반색을 하며,)

(그러다 흠칫 정신을 차리고,)

뻑,(손가락으로 두순이 환상을 찢러 터뜨리는 두돌이,)

두돌이:이러면 안되,(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마구 머리를 흔들고,)

(품속에서 두순이가 준 손수건을 꺼내는 두돌이,)

두돌이:기다리세요 두순아가씨,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배필을 데려갈게요,(손수건을 꼭 쥐며 결심,)

.....

쌐아아아,(퍼붓는 폭우,)

쌐아아아,(하늘을 떠가는 방패연 광주리를 배경으로 퍼붓는 폭우,)

(광주리에 쪼그리고 앉아 자루의 보리가루를 입에 털어넣는 두돌이,보리가루가 얼마 남지 않았다.)

두돌이:보리가루가 얼마 남지 않았어,아껴 먹어야지,(조금 남은 보리가루를 보며,)

.....

후우우웅,(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하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하늘을 떠가는 방패연 광주리,)

(자루속의 보리가루를 입에 털어넣는 두돌이,하지만 보리가루는 나오지 않는다.)

두돌이:이제 보리가루도 떨어졌어,(텅빈 자루를 보며 낭패한 표정,)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있는 두돌이,)

두돌이:너무 춥고 배고파...(극심하게 떨면서,)

(등에 차고있던 밥주걱을 뺏는 두돌이,)

두돌이:이걸 화롯불로 변하게 하면 따뜻할텐데,(밥주걱을 쥐고 갈등,)

(문득 입술을 지그시 깨우는 두돌이,)

두돌이:아니야,주문이 한번 밖에 안남았어,아껴야 되,(밥주걱을 다시 등에 차며,)

(벌떡 일어서는 두돌이,)

두돌이:구름님!어디 계세요!제발 저를 만나주세요!꼭 할 말이 있어요!구름님!(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하늘을 향해 소리친다.)

과과과!(이때 광음과 함께 번개가 번쩍,)

과르르르!과과!(하늘에 줄기줄기 벼락이 내려쬐인다.)

두돌이:벼락이야!(놀라고,)

두돌이:방패연이 벼락을 맞으면 큰일인데....(방패연을 보며 걱정스런 표정,)
꽂! (이때 내려꽂히는 한줄기 벼락,)
과직, (벼락이 방패연을 강타하며 박살나는 방패연,)
두돌이:아앗! (규형을 잃고 광주리가 뒤집어지자 밖으로 튕겨진다.)
두돌이:아아악! (비명을 토해내며 아래로 떨어진다.)
쿠우우우,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는 두돌이, 거의 정신을 못차리는 두돌이고,)
푸우우욱, (숨털같은 구름 위로 떨어지는 두돌이,)
(숨털 위에 쓰러져 있는 두돌이,)
(눈을 뜨는 두돌이,)
두돌이:여긴 어디지?(벌떡 상반신을 일으키며,)
두돌이:폭신폭신햐 해, 마치 숨털처럼, (펼쩍펼쩍 뛰며,)
구름:간지럽다. 그만 뛰어라....(하이얀 뭉게구름 모습의 구름이 두돌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음성이 메아리처럼 울린다.)
두돌이:누구시죠?(긴장되는 표정으로,)
구름:난 구름이다.
두돌이:구름님!(반색을 하고,)
구구구구, (순간 구름이 무서운 먹구름으로 변한다.)
구름:날 만나려는 이유를 말해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벼락 속으로 널 던져 버리겠다!
(험악하게 소리친다.)
두돌이:전 두더지마을 두돌이에요, 구름님에게 부탁이 있어 찾아 왔어요, (당당하게,)
구름:내기 무섭지 않으나?(먹구름 형태로 험악하게,)
두돌이:전 구름님에게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당당하게,)
구름:으하하하!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고,)
슈우우우, (다시 하이얀 뭉게구름으로 변하는 구름,)
구름:정말 용감한 청년이구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구름:나에게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거지?(뭉게 구름이 꿈틀거리며,)
두돌이:두순아가씨의 배필이 되어주세요, (단호하게,)
구름:그런 부탁이라면 대 환영이다! 마음씨 착하고 예쁜 두순이 소문은 나도 들었다! 청혼을 받아주마! (기분좋은 표정으로,)
두돌이:고맙습니다. 두순아가씨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배필을 찾고 있었어요. (반색을 하며,)
(문득 두돌이 말을 듣고 흠칫하는 구름,)
구름:방금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배필이라고 했느냐?(표정이 굳어지며,)
두돌이:네 구름님, 해님은 구름님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세다고 했어요,
구름:후우, (안타까운 한숨을 토해내고,)
구름: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세지 못하단다. (착잡한 표정으로,)
두돌이:설마.... (믿지 않는 표정이고,)
구름:마음만 먹으면 불덩어리 해도 끄꿍 열려 버릴수 있지만 세찬 바람이 불면 난 산산히 부서져 날아가 버린단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것은 바람이란단다. (우울한 표정으로,)
두돌이:듣고보니 그렇군요, (난감한 표정이고,)

구름: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자를 찾는다면 바람을 찾아가거라,(고개를 돌려 외면한다.)

두돌이:어디로 가면 바람님을 만날 수 있죠?(구름을 향해 소리치고,)

구름:서쪽 바다 끝에 살고 있다.하지만 입김이 워낙 강해서 아무도 다가갈 수 없단다.헤엄을 잘치는 뿔거북이 외에는,(진지하게,)

구름:원한다면 뿔거북이가 살고 있는 회오리샘에 데려다 주마,(진지,)

두돌이:절 회오리샘에 데려다 주세요 구름님, 부탁드립니다,(구름에게 간청을 하고,)

구름:회오리샘에는 데려다 주겠지만 날 원망하지는 말거라!(슈우우우,두돌이를 손에 움켜쥐고 날아간다.)

*

*

*

(운동장 만큼이나 넓은 평평한 바위가 화면에 잡히고,)

과과과과!(바위 중심에 집을 통째로 삼킬만큼 커다란 물 웅덩이가 무섭게 소용돌이 치고 있다.)

쿠우우우,(두돌이를 쥐고있는 뭉게구름이 물웅덩이가 있는 바위 쪽으로 다가온다.)

구름:다왔다.바로 저기다.(물웅덩이가 있는 바위를 내려다보며,)

두돌이:빨리 가요 구름님,

슈우우우,(바위 위로 안착하는 뭉게구름,)

(뭉게구름 손에서 빠져나와 바위 위에 내려서는 두돌이,)

구름:여기가 뿔거북이 살고있는 회오리샘이다.(과과과,두돌이와 함께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웅덩이를 보며,)

두돌이:물이 무섭게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과과과,회오리샘을 보며 긴장,)

구름:보통 샘이 아니다.

구름:돌맹이를 회오리샘에 던져 봐,(두돌이에게,)

(주위에서 머리통만한 돌을 집어드는 두돌이,)

속,(회오리샘에 바위돌을 던지는 두돌이,)

퐁당,(회오리샘에 빠지는 바위돌,)

과자자작,(순간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가루로 부서지는 바위돌,)

두돌이:소용돌이가 단단한 바위를 부숴뜨렸어요!(경악하고,)

구름:바위든 나무든 모조리 부숴버리는 소용돌이지, 때문에 누구도 뿔거북을 만날 수 없단다.(회오리샘을 지그시 보며,)

구름:어쨌든 회오리샘에 데려다 줬으니 난 가겠다!(슈우웅,허공으로 떠오르며,)

구름:행운을 빈다!(슈우우웅,하늘로 날아가며,)

두돌이:안녕히 가세요!구름님!은혜는 잊지 않을게요!(어느새 까마득히 사라지는 구름을 향해 소리친다.)

(회오리샘을 돌아보는 두돌이,)

쿠쿠쿠쿠,(소용돌이치는 회오리샘,)

(회오리샘을 지그시 내려다보는 두돌이,)

두돌이:회오리샘에 이대로 뛰어들면 나도 바위처럼 부숴지겠지?(굳은 표정,)

두돌이:방법은 한 가지 뿐이야,(표정이 단호해지고,)

(등에 차고있던 밥주걱을 뽑는 두돌이,)

두돌이:이제 주문이 한번만 남았어,(밥주걱을 쥐고 굳은 표정으로,)

두돌이:무쇠 갑옷으로 변해라!(밥주걱에게 주문을 소리치고,)
 푸슈슈슁,(투구 포함한 철갑옷으로 변하는 밥주걱,)
 두돌이:이 무쇠갑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야,(무쇠갑옷을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과과과과,(소용돌이치는 회오리샘,)
 (무쇠투구와 무쇠갑옷을 입고 회오리샘을 우뚝 내려다보며 서있는 두돌이,)
 두돌이:어쩌면 무쇠갑옷도 소용없을지 몰라,(굳은 표정,)
 (이때 품속에서 두손이가 준 손수건을 꺼내는 두돌이,)
 두돌이:두손 아가씨,절 지켜주세요,(손수건을 꼭 쥐며,)
 (손수건을 품속에 넣는 두돌이,)
 두돌이:뿔거북이님!(회오리샘을 향해 몸을 날린다.)
 슈우우우 풍덩,(회오리샘에 떨어지는 두돌이,)
 과과과과,(소용돌이에 휩싸이는 두돌이,)
 두돌이:아아아악!(회오리샘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과과과,(두돌이를 삼키고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회오리샘,)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화면가득 잡히고,)
 (갑옷과 투구를 착용한 모습으로 해변가에 쓰러져 있는 두돌이,)
 두돌이:으음....(정신을 차리고,)
 “무쇠갑옷을 입었더라도 용감하지 못하면 회오리샘에 뛰어들지 못한다.”(이때 자애로운
 음성이 들리고,흠칫 고개를 쳐드는 두돌이,)
 뿔거북:지금까지 회오리샘에 뛰어들건 자네가 처음이야,그런데 왜 날 찾는건가?(두돌이를
 향해 부드러운 표정으로 머리에 길다란 뿔이 돌아있다.)
 두돌이:뿔거북님 이신가요?(반색을 하며,)
 뿔거북:그래 내가 회오리샘에 살고 있는 뿔거북이다.(미소를 지으며,)
 두돌이:저를 바람님에게 데려다 주세요, 바람님을 꼭 만나야할 일이 있어요,(간청하고,)
 뿔거북:바람님을?(흠칫 놀라고,)
 두돌이:주인님께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사위를 얻고 싶어 하세요,그래서 바람님에
 게 두손아가씨 배필이 되어달라고 청혼을 하려는 거예요,(뿔거북이에게 간청하며,)
 두돌이:뿔거북님만이 바람님이 있는 곳을 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저를 바람님이 있는 곳
 에 데려다 주세요 제발,(간청하고,)
 뿔거북:자네 사정은 알겠지만 바람님을 만날 수는 없단다.(진지한 표정으로,)
 두돌이:왜죠?(의아,)
 뿔거북:바람님은 서쪽 바다 끝에 살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용가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
 아무도 그 무시무시한 용가리를 이길 수는 없어,(굳은 표정으로,)
 (잠시 표정이 긴장되는 두돌이,)
 두돌이:용가리는 두렵지 않습니다.절 바람님이 있는 곳에 데려만 주세요,뿔거북님,(단호한
 표정으로,)
 두돌이:부탁이에요,
 뿔거북:정말 용감한 청년이군,(감탄하고,)
 뿔거북:좋아,소원이라면 바람님이 있는 곳에 데려다 주겠다. 하지만 용가리에게 갈기갈기
 찢길지도 모르니 각오는 하거라,(진지한 표정으로,)

두돌이:바람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용가리와도 싸우겠어요,(비장하게,)
 빨거북:내 등에 타,(바다 쪽을 향해 옆드려 두돌이를 돌아보며,)
 두돌이:영차,(빨거북 등에 올라타고,)
 빨거북:바람님이 있는 서쪽 바다 끝까지 가려면 앞으로 오십일은 헤엄쳐야 한다.(두돌이를 등에 태우고 바다로 들어가며,)
 (석양이 지는 서쪽 바다 수평선을 향해 두돌이를 태우고 헤엄쳐 가는 거북이,)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두돌이를 태우고 수평선을 향해 헤엄쳐 가는 거북이,두돌이는 여전히 투구와 갑옷 입고,)
 파아아아,(문득 파도가 거칠어진다.)
 빨거북:바람님이 살고 있는 서쪽 바다 끝에 거의 다 왔다.
 두돌이:빨거북님,갑자기 바다가 거칠어졌어요,(긴장하며,)
 빨거북님:용가리가 나타날지 모르니 조심해,
 쿠와아아아!(이때 공룡을 닮은 거대한 용이 바다 속에서 솟구친다.)
 크카카카!(두돌이와 빨거북을 향해 험악하게 괴성을 지르는 용가리,)
 빨거북:바람님을 지키는 용가리야!(용가리를 보며,)
 두돌이:엄청나게 커요!(놀란 표정이고,)
 후아아아,(빨거북과 두돌이를 향해 입에서 불을 뿜는 용가리,)
 슈슈슈,(번개처럼 헤엄쳐 용가리 불을 피하는 빨거북,)
 크아아아!(화가 나서 괴성을 지르는 용가리,)
 빨거북:저 용가리 몸은 워낙 단단해서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다. 오직,
 썩,(자신의 머리에 돋아나 있는 길다란 뿔을 뺏는 빨거북,)
 빨거북:이것만이 용가리 몸을 뚫을 수 있다.받아라,(뿔을 두돌이에게 내민다.뿔 아래쪽은
 잡을수 있도록 되어있다.)
 두돌이:고마워요 거북님,(뿔을 받아들고 감격,)
 크아아아!(빨거북과 두돌이를 향해 앞발을 휘두르는 용가리,)
 슈슈슈-(용가리 공격을 피하는 빨거북,)
 파악,(용가리를 향해 몸을 날리는 두돌이,)
 척,(용가리 등에 올라타는 두돌이,)
 빨거북:다른곳은 아무리 찢러도 소용없다! 뒷덜미를 찢러야 해!(두돌이를 향해 소리친다.)
 카우우우!(성난 용가리가 두돌이를 떨어뜨릴려고 마구 몸을 흔든다.)
 두돌이:이익,(용가리 등에 삐죽삐죽 나온 뿔을 잡고 버틴다.)
 두돌이:용가리 뒷덜미를 찢었다고 했지,(안간힘을 쓰며 용가리 등을 기어올라간다.)
 카아아아!(마구 몸을 흔드는 용가리,)
 (용가리 뒷덜미 까지 기어 올라간 두돌이,)
 두돌이:야아앗!(뿔로 용가리 뒷덜미를 찢러간다.)
 폭,(용가리 뒷덜미를 찢르는 뿔,)
 꼬아아아!(비명을 지르며 거칠게 몸을 비트는 용가리,)
 두돌이:아앗!(통겨져 날아가고,)
 풍덩,(바다에 떨어지는 두돌이,)
 꼬으으,(넘어져 가는 용가리,)

철퍼덕,(바다에 쳐박히는 용가리,)
꾸르르르,(서서히 가라앉는 용가리를 지켜보는 뽕거북과 두돌이,)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지는 용가리,)
뽕거북:용가리를 이겼어!(탄성을 지르고,)
뽕거북:자네가 용가리를 이긴 거야,(두돌이를 돌아보며 감탄,)
두돌이:뽕거북님 뽕 덕분에예요,돌려드릴께요,(뽕을 뽕거북에게 건네주고,)
쓱,(뽕을 다시 자신의 머리에 꽂는 뽕거북,)
뽕거북:여기서 헤어져야 겠다.(두돌이를 향해 숙연하게,)
두돌이:아직 바람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요?(걱정스런 표정으로,)
뽕거북:바람님과 난 사이가 매우 나쁘다. 날 보면 자네까지도 만나지 않을려고 할 거야,(진지,)
뽕거북: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람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석양이 지는 서쪽 수평선을 가리키며,)
뽕거북:바람님을 만나 꼭 소원을 성취하기 바란다. 자넨 정말 용감한 청년이야,(헤엄쳐 가며,)
두돌이:안녕히 가세요 뽕거북님!정말 고마웠어요!(사라져가는 뽕거북을 향해 손을 흔든다.)
(노을이 깔리는 서쪽 바다를 돌아보는 두돌이,)
(서쪽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가는 두돌이,)
(열심히 헤엄쳐가는 두돌이,)
두돌이:바람님!어디계세요 바람님!드릴 말씀이 있어요!(소리치며 헤엄쳐 간다.)
두돌이:바람님!
휘이잉,(이때 어디선가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두돌이:웃,갑자기 왜 바람이지?(인상을 찡그리고,)
휘이잉,(수평선 끝에 어둡고 커다란 동굴이 보이고 그 속에서 세찬 바람이 쏟아져 나온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번쩍 떠지는 눈빛,)
바람:여기까지 날 찾아오다니 대단히 용감한 놈이구나!그런데 왜 날 찾는 거냐?(어두운 동굴 속에서 눈빛을 번뜩이며,)
두돌이:바람님이신가요?(반색을 하며,)
바람:그렇다.내가 바람이다.
두돌이:구름님이 그랬어요,바람님이 자신보다 훨씬 용감하고 힘이 세다고!(바람을 향해 소리친다.)
바람:당연하지!우하하하!(기세등등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바람:구름 따위는 내가 입김만 살짝 불어도 과자처럼 부스러져 날아가 버린다!(기세등등,)
두돌이:그렇다면 두손아가씨와 결혼해 주세요!저희 주인님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위를 얻고싶어 합니다!(바람을 향해 소리치고,)
바람:세상에서 가장 용감한....(흠칫하고,)
(갑자기 주눅든 표정을 짓는 바람,)
바람: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위를 찾는 거라면 난 아니다....(우울한 표정으로,)
두돌이:바람님 보다 더 용감한 자가 있단 말인가요?(놀란 표정으로,)
바람:그래,(한숨을 토해내며,)
바람:그건 바로 너력바위다.난 입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날려 버릴 수 있지만 너력바위는

내가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끄덕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힘이 센 것이지,(주눅든 표정으로,)

두돌이:너럭바위라면 우리 동네에 있는 바위인데....!(내심,놀라는 표정이고,)

* * *

(평화로운 두더지 마을 풍경이 화면에 잡히고,)

(우뚝 서있는 두돌이가 화면에 클로즈업,웃은 너털너털 헤어지고 전신 곳곳에 상처투성이, 동에는 밥주걱을 차고 있다.)

두돌이:다녀 왔습니다.(두더지영감 집 정원,두더지 영감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두더지 영감 옆에는 두순이,)

두더지영감:두돌이 네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짐작 하겠구나,(두돌이를 위로하며,)

두순이:두돌아....(눈물 글썽이고,)

두더지영감:그래,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사위를 찾았느냐?(표정이 진지해지며,)

두돌이:네 주인님,찾았습니다.(공손히,)

두더지영감:오! 찾았다고?(반색을 하며,)

두더지영감:따라 오너라,방에 들어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돌아선다.)

두순이:두돌아,(두더지영감을 따라 가려는 두돌이를 부른다.)

두순이:매일 네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또 빌었어,(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두돌이:기뻐하세요,두순아가씨와 결혼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배필을 찾았어요,(미소지으며,)

두순이:그런건 관심없어, 난 두돌이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게 훨씬 기뻐,(기쁨의 눈물 흘리며,)

두돌이:이거 돌려 드릴게요,(참나리 꽃이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을 두순이에게 건네주며,)

두돌이:두순아가씨가 나에게 준 손수건이예요,힘들 때 땀을 닦으라고,(두순이를 향해 미소지으며,)

두순이:잃어버리지 않았구나....(손수건을 쥐고 감격,)

두돌이:그 동안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미소지으며,)

(손수건을 꼬옥 움켜쥐는 두순이,)

.....

두더지영감:너럭바위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이 세다고?(경악하는 얼굴이 화면바짝,)

두돌이:네 주인님,(잘꾸며진 방 내부, 두더지영감을 향해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한쪽에 두순이 앉아있고,)

두더지영감: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자가 해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우리 동네 너럭바위라니....!(어이없는 표정,)

두돌이:바람님이 그렇게 말한걸 보면 너럭바위님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이센 건 분명합니다.(단호하게,)

두더지영감:흠,(생각에 잠기고,)

두더지영감:내가 직접 너럭바위에게 청혼을 하겠다.내 딸과 결혼해 달라고,(결심하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선다.)

.....

(너럭바위의 위용이 압도적으로 화면에 잡히고,)

두더지영감: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사위를 찾고 있소, 내 딸 두순이와 결혼해 주시오,(너럭바위 앞에 우뚝 서서 진지하게,주위에 두돌이와 두순이 모습이 보이고,)

너럭바위:두순이가씨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사위 아니요,(너럭바위에 얼굴 형상이 나타나며,)

두더지영감:너럭바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지 않다고?(놀란 표정으로,두돌이와 두순이도 놀라고,)

너럭바위:모두 무서워 벌벌 떠는 바람에게도 끄떡하지 않는 나지만 나도 무서워 하는게 딱한가지 있소,(얼굴이 움직이며,)

두더지영감:그게 누구요?(긴장되며,)

너럭바위:그건 내 발 밑을 마구 파서 헤집고 다니는 두더지들이오,계속 이렇게 발밑 땅을 파헤치면 나도 맥없이 무너지고 말테니까,

너럭바위:난 두더지들이 무서워 잠도 못잘 지경이러오,(울상 지으며,)

두더지영감:그렇다면 두더지들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이 세단 말이오?(놀란 표정으로,)

너럭바위:그렇소,(단호하게,)

두더지영감:이럴 수가!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자가 우리 두더지라니....!(놀란 표정,)

두더지영감:그래 내가 어리석었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자가 내 주위에 있었는데 괜히 힘들게 찾아 다녔어....(깨달는 표정이고,)

두더지영감:마을 청년들을 모두 모아라,그 자리에서 내 사위를 결정 하겠다.(두돌이를 돌아보며,)

두돌이:네 주인님,(허리를 굽히고,)

두순이:부탁이 있어요,아버지,(두더지영감을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두더지영감:말해 보거라,(자애로운 표정을 지으며,)

두순이:제 배필은 제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주 세요,(진지하게,)

두더지영감:오냐,평생 함께 살아갈 부부가 될터인데 배필은 네가 선택하거라,(두순이에게,)

.....

“소문 들었어?두순이 신랑을 우리 마을 청년들 중에서 고르다며?” “누가 선택될는지 정말 행운이야,” “그럼,마음씨 굽고 예쁜 두순이와 결혼하고 거기에다 천하갑부 두더지영감의 사위가 되는거잖아,” (수근거리는 두더지 마을 두더지들,)

“우리 마을에서 두순이와 결혼할 수 있는 두더지는 나 밖에 없어,” “무슨소리,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두더지는 나야,” (서로 으쓱 거리는 청년 두더지들,)

쿵,(이때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날아와 바닥에 떨어진다.화들짝 놀라는 청년 두더지들,)

두더지1:나보다 용감하고 힘센 두더지가 있으면 나와 봐!내가 두순이와 결혼할 거야!(방금 던진 바위 위에 한발 척 올려놓고 근육을 자랑하며 험악하게 소리친다.)

.....

과작,(장작을 쪼개는 도끼가 화면 바짝,)

(다시 나무토막 하나를 올려놓는 두돌이,뒤뜰에서 장작을 쪼개는 중,)

두순이:두돌아,(다정하게 부르고,막 도끼를 내려치려던 두돌이가 돌아본다.)

두돌이:두순아가씨,(반가운 표정을 하고,)

두순이:내일 내 배필을 선택할 때 말이야,두돌이 너도 꼭 참가 해,알았지?(다그치듯,)

두돌이:하지만 난 그런 자리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요....어떻게 두순아가씨와 결혼할수 있겠어요....(우물쭈물,)

두순이:어째서 너가 그런 자격이 없어?우리 마을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참가할 권리가 있는 거야,(다그치듯,)

두순이:약속해,꼭 참가하겠다고,(더욱 다그치고,)

두돌이:알...았어요....(마지못해 우물쭈물,)

*

*

*

(두더지영감 거대한 저택이 화면에 잡히고,)

(두더지영감 집 정원에 서있는 두더지청년 수십명,)

(맨 뒤에 쭈뼛거리며 서있는 두돌이 모습도 보이고,)

두더지영감:난 그동안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사위를 찾고 있었소!소문을 들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내 사위가 될 두순이 배필을 결정할 생각이오!두더지 청년들을 향해 소리친다.옆에는 두순이가 서있고,)

(마른침을 삼키며 긴장하는 두더지 청년들,)

두더지영감:선택은 내 딸 두순이가 직접 할거요!

“두순이가 선택한다고?” “자기 손으로 남편을 직접 고르고 싶은거야,” (수근거리는 청년들,)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 두돌이,)

두순이: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네가지 질문을 하겠어요!용감하고 힘세지 않으면 결코 대답할수 없는 질문이에요!(청년들을 향해,)

두순이:네가지 질문에 모두 대답하는 분은 제 남편이 될 수 있어요!(단호하게,)

“어떤 질문이지?” “걱정없어,질문에 대답하는 거라면 자신있어,” (긴장되는 청년들,)

두순이:첫번째 질문이에요,해님을 만나려면 어떤 곳을 통과해야 되죠?(청년들을 향해,)

“그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건데...” “아무도 대답하지 하지 못 할거야,” (난처한 표정으로 수근거리는 청년들,)

두돌이:그건....(쭈뼛거리며 한손을 들어올린다.)

두순이:두돌이님 대답해 보세요,(두돌이를 향해,)

두돌이:해님을 만나려면 용암보다 뜨거운 불안개를 통과해야 되요,(당당하게,)

두순이:맞았어요,(흐뭇한 표정으로,)

“오!두돌이가 맞췄어!” (놀라는 청년들,)

두순이:두번째 질문을 하겠어요,

두순이:구름님을 만나려면 파란사슴님이 만든 방패연이 필요한데 파란사슴님은 어디에 살죠?(청년들을 향해,)

“이번 질문도 못맞추겠어....” “파란사슴이 있긴 있는 거야?” (난처한 표정으로 수근거리는 청년들,)

두돌이:파란사슴님은 백일동안 먹지도 자지도 말고 올라가야 하는 신선봉 꼭데기에 살고 있어요,(당당하게,)

두순이:맞았어요,(흐뭇한 표정이고,)

“두돌이가 또 맞췄어!” “그렇다면 두돌이가 파란사슴을 만났다는 거잖아!” (두돌이를 돌아보며 놀라는 청년들,)

(표정이 진지해 지는 두더지영감,)

두순이:세번째 질문이에요,
두순이:바람님을 만나려면 용가리와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용가리를 물리칠 수 있죠?
“도저히 대답하지 못하겠어,” “용가리와 싸워 봐야지,” (투덜거리는 청년들,)
(손을 숙 쳐드는 두돌이,)
두돌이:용가리를 이기려면 뿔거북님 머리뿔로 용가리 뒷덜미를 정확히 찔러야 해요,(당당하게,)
두순이:정확히 맞췄어요,(흐뭇한 표정이고,)
“광장해 두돌이....!” (두돌이를 향해 감탄하는 청년들,)
두순이:마지막 질문이에요,(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두순이:이 손수건 속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죠?(손수건을 쳐들어 보이며,내부가 안보이게,)
“참내,한번도 보지못한 손수건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는지 어떻게 알아맞히란 거야?” (투덜거리는 청년들,)
두돌이:그 손수건에는....(진지한 표정으로,)
(순간 모든 청년들이 두돌이를 돌아본다.)
두돌이:참나리 꽃이 수놓아져 있습니다.세상에서 가장 예쁜 참나리,(진지한 표정으로,)
확,(펼쳐지는 손수건,)
(참나리가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이 화면 왕창 잡히고,)
두순이:맞았어요....참나리가 수놓아져 있어요....(감격의 눈물 글썽이며,)
“두돌이가 네가지 질문을 모두 맞췄어!” “그러면 두더지영감 사위가 되는거잖아!” (경악하는 청년들,)
두순이:두돌이님....저와 결혼해 줘요....(두돌이를 향해 사정조로,)
두돌이:그건....(당황하며 우물쭈물,)
(두더지영감을 돌아보는 두돌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두더지영감,)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는 두돌이,)
두순이:부탁이에요 두돌이님....(간절하게,)
(속 고개를 쳐드는 두돌이,)
두돌이:두순아가씨 청혼을 받아 주겠습니다.(당당하게,)
두순이:두돌아!(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두돌이를 향해 달려간다.)
콧,(두돌이를 끌어안는 두순이,)
두순이:두돌아 고마워,사실 난 어릴적부터 두돌이에게 시집 가겠다고 결심했었어...!(두돌이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
“와아!두돌이와 두순이가 결혼한다!” “알고보니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자는 두돌이었어!” (짜짝짜,축하 박수를 치는 주위 두더지청년들,)
(끌어안고 있는 두돌이와 두순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두더지영감,)

* * *

(주제가 음악이 흐르면서 잔치 준비를 하는 두더지 마을,음식을 만드는 두더지 아줌마들,전통 혼례식을 하는 두돌이와 두순이,맛절을 하는 두돌이와 두순이,서로 마주보며 미소짓는 두돌이와 두순이,)

=====끝=====